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오늘날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KITECH'라는 생기원의 비전 실현에 있어 특히 해외사무소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해주며 생기원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생기원 해외사무소 이야기. 올해로 설립 14년째를 맞이한 미국사무소 최병욱 소장을 직접 만나보았다.



최병욱 소장에게 듣는 미국사무소

글로벌 KITECH의 든든한 지원군

1. 미국사무소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기원 미국사무소는 지난 2002년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버클리에 문을 열었던 사무소는 2006년 샌프란시스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이곳 샌프란시스코는 전자·컴퓨터 및 반도체 기업이 한데 모인 첨단기술의 전진기지, 실리콘밸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수많은 벤처회사들까지 더해져 세계 최대의 산업복합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에 생기원 미국사무소는 이곳의 선진기술 교류 및 도입을 촉진하고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향함으로써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미국사무소의 중점 추진사업은?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으로의 진

출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지, 또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을지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에 생기원 미국사무소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 약 일주일에서 열흘의 시간동안 여러 기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이곳에 와서 미국 시장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등을 체험해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도 매우 큼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수많은 미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공학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사무소는 이러한 한인 공학인들로 이루어진 'K(KOREAN)그룹'이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